

# 완도군, 모범음식점 29개소 지정

### 음식 문화 개선·위생·서비스 분야 등 22개 항목 심사 올해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 준수 여부 평가 항목 추가

완도군이 모범음식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한 43개 음식점 중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신규 5개 업소, 재지정 24개 업소 등 29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은 완도군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음식 문화 개선, 위생, 서비스 분야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지정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영업장 청결

여부, 주방 및 조리 공간 위생 상태, 식자재 보관 실재, 쓰레기 감량 노력, 손님맞이 서비스 등 22개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증과 지정표지판을 업소 출입구에 부착하게 되고, 완도군 관광안내 지도 수록, 군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완도군 외식업을 대표하는 모범음식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손님들에게 완도의 맛과 친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모범음식점 지정에 이어 올해 안에 완도군 대표 맛집 선정도 추진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음식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완도=김광수기자

# 진도군, 21일 윤림아트마켓 개최

### 오전 11시부터 윤림산방서 수공예품 판매·다양한 체험·공연

진도군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독특한 수공예품 판매와 다채로운 공연, 체험 등의 윤림아트마켓을 오는 21일 윤림산방에서 개최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예정인 '윤림아트마켓'은 진도에서 생활하는 예술가들이 참여해 본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미술품을 판매한다.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과 공연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 윤림산방을 찾아온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재미있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림아트마켓에 참여하는 품목은 생활도자기, 양초 공예품, 디퓨저와 생활한복, 전통 소품은 물론 다육수제 화분, 염서 노트 등 웹툰 작품이다.

또 진도군 아트상품, 라탄 공예품, 뜨개소품, 진도율금 비누를 비롯 도자기, 천연염색, 채색체험, 꽃물 손수건, 압화타일자석, 비누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다.

먹거리는 진도 특산품을 활용한 진도대과빵, 율금뽕빵, 대과 스콘과 유기농 더치커피, 수제청과 수제과자, 진도썩을 활용한 송편도 함께 판매한다.



추억의 DJ, 진도북놀이 등 국악과 통기타, 미술, 세계민속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도아리랑 아트마켓 관계자는 "민속문화예술특구 진도군에서 처음 개최되는 아트마켓에 관광객들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며 "행사를 잘 준비해 아트마켓 참여자들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강진군 "청년창업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 이승욱 강진군수, 청년창업 사업장 격려 방문



이승욱 강진군수가 지난 13일 관내 청년들이 창업한 3개 사업장을 찾았다.

이 군수는 이날 요리노리(요리교실, 케이터링, 원데이블 레스토랑), 낭만

지구(카페), 플레이 휠(카페)에 방문해 청년들의 창업을 축하하고 조언 및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2020년 처음 진행된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지난 5월 참여자 신청을 시작으로, 6월에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한 평가, 7월 창업심화교육컨설팅을 진행했다. 이후 8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리모델링 및 재료비 등에 쓸 수 있는 창업지원금 1,800만 원을 지원했다.

현재 강진읍 내 카페, 요식업 등 4곳의 가게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을 시작했다. 12월 중에는 천연염색 스튜디오 및 체험장인 복고동이 개업을 앞두고 있다.

이 군수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청년의 정착이 강진군의 미래이다. 앞으로도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강진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지난 17일 강진종합운동장에서 이승욱 강진군수, 차영수 전남도의회 의원, 김도연 강진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한마음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강진군 의용소방대연

합회(회장 김중수)가 주최, 강진군이 후원해 개최됐다. 그동안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자발적으로 앞장서 온 의용소방대원들과 소방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행사에서는 소방장비 착용 릴

레이, 화학 경기, 소방호스 끌기 등이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서는 소방행정과 소방활동에 공헌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30여 명에 대해 강진군수, 군의회 의장, 소방서장, 도의원, 도연합회의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승욱 군수는 "이번 화합 한마당 행사가 서로 우의를 더욱 돈독하게 다져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해남군, 내달 8일까지 2021 유기질비료 접수

해남군은 오는 12월 8일까지 2021년 유기질 비료 지원을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법인)이며, 관내 경작지에 한하여 구입 희망업체, 비료 종류(등급),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20kg 포대당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은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은 등급에 따라 1,300~1,600원이다.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kg을 초과해서 신청할 수 없고,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사업 대상 확정량에 대해 9월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배정된 사업량에 대해 포기한 것으로 처리해 재배정하게 된다. 또한 10~12월(추가공급대상 포함) 수령을 희망한 농업인이 포기하는 경우 다음해 사업 지원 시 공급 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하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임차해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중일 경우 2021년 영농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임대차 계약서)등을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 장흥 대표 특산물 '표고버섯', 지리적표시제 우수사례 우수상



장흥군 대표 특산물 표고버섯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0년 제2회 지리적 표시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전국 우수상을 차지했다.

2020년 지리적 표시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장흥 표고버섯 연합회(회장 임병석)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600만원을 수상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전국 지리적 표시제 우수사례 선발대회는 지리적 표시제 품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재배기술 향상에 노력하고 홍보관측 활동 등을 통해 생산능가

의 소득 향상에 기여한 단체에 대해 시상한다.

수상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서류 및 현장심사, 발표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2002년부터 시행된 지리적 표시제는 전국 182품목으로 장흥군은 4개 품목(표고버섯, 매생이, 김, 키조개)이 등록되어 있다.

장흥 표고버섯은 2006년에 임산물 제2호로 등록, 400여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장흥군 효자 임산물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장흥군 표고버섯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표고버섯 기술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 매년 지리적 표시제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